

警友會 新年 人事會 盛況

前·現職 경찰인 4백여명 組織發展위한 결속 다져



廳舍 移轉을 경우회관 마련의 발판으로 삼기로

경우회가 지난 1월 18일 오후 3시 신당동 도로교통안전공단 3층 강당에서 구우회 중앙회장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 전직 치안총수, 중앙회 임원, 현직 경찰청 간부와 서울경찰청 간부 등 전 현직 경우 4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신년 인사회를 갖고 경찰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우회 발전을 결의했다.

이날 구우회 경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우회원들의 휴식공간인 사랑방 개설과 교통편의 제공차원에서 중앙회를 도심권에 위치한 준경찰청사인 도로교통안전공단으로 이전했다』면서 『이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더욱 더 당당하고 활기찬 경우회, 생동하는 경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는 한편 『이곳에서 前現職이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중지를 모

아 120만 회원의 숙원이며,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경우회관 마련에 힘쓰자』고 호소했다. 허준영 경찰청장 후보자도 『평소 현직 후배 경찰들에게 보여주는 선배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린다』면서 『경찰의 발전과 경우회 발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이날 건배 제의에 나선 정상천

前 해양수산부 장관도 『구우회 경우회장은 그 특유의 추진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경우회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허준영 경찰청장께서도 선배 조직인 경우회를 적극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2부 행사는 경음 관현악단의 반주 속에 특별히 초청된 가수와 참석 경우들이 번갈아 가며 흥겨운 노래가락을 불러 결속을 다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警察, 대대적 人事로 개혁 가속화될 듯

세대교체와 지역안배에 비중

허준영 경찰청장이 취임한 지난 1월 19일 정부는 서울경찰청장에 이기목 경찰청 정보국장, 경찰청 차장에 최광식 전남경찰청장, 경기경찰청장에 이택순 청와대 치안비서관, 경찰대학장에 강영규 경찰청 경비국장을 각각 치안정감으로 승진, 발령했다.

이번 치안정감 인사는 허준영 신임 경찰청장이 대구 출신임을 고려해 충남과 전남·경남·서울 출신을 배치, 철저한 지역안배를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월 21일 경찰청 혁신기획단 홍영기 경무관을 경무기획국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등 9명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하고 지방청장급 2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지난해 11월 발령받은 경북지방청장 1명을 제외한 치안감 전원의 보직을 교체함으로써 경찰인사상 최대 규모의 지휘부 자리이동이 이뤄졌다.

특히, 제주지방경찰청장에 김인욱 경무관을 임명함으로써 60년 경찰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지방청장이 탄생하게 됐다.

치안감으로 승진한 9명 중 중부권과 영남, 호남 출신이 각각 3명을 차지함으로써 지역간 '황금분할'을 이루는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된 인사란 점이 두드러진다.

여기에도 47년생 치안감들이 모두 '용퇴'함으로써 경찰 수뇌부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점도 이번 인사의 특징인데, 배성수 전북청장, 문경호 경찰종합학교장, 김옥전 부산청장, 이희경 강원청장 등 47년생 치안감 중 일부가 이번 인사에서 모두 물러났다.

반면 치안감으로 승진한 9명 중에는 40대 후반의 경무관이 3명이나 포함돼 경찰 수뇌부는 한층 더 젊어지게 됐다. 서영호 중앙경찰학교장은 48세이고, 홍영기 경찰청 경무기획국장과 박영진 경남청장은 49세이다.

특히 경무관 승진은 승진인사 기조를

호트러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출신지역을 안배하여 지역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동안 분청과 서울청에 한하여 경무관을 선발하던 것을 지역 우수 인재의 발탁을 통한 지방경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급변 인사에도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인력 2명을 선발했다.

또한 경찰대학 1기 출신인 윤재욱 총경이 경무관으로 승진함으로써 첫 경대 졸업생이 배출된 '85년도 이후 20년만에 경무관이 배출되는 영예를 안았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순경 임직자의 경찰고위간부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총경 승진 쿼터제를 도입하여 승진 T/O 25%내외의 무배정, 순경 임직자에게는 승진 적정년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경찰청은 서장급인 총경 보직인사를 지난 2월 3일 실시했다.

責任에 걸맞는 權限, 役割에 상응한 福祉基盤 조성할 터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식서 밝혀

제 12대 허준영 경찰청장이 지난달 19일 취임식을 갖고 보다 나은 대민 치안서비스를 다짐했다. 新任 허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실로 중요한 시기에 15만 경찰을 대표하게 된 데 대해, 개인적인 영광 이전에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할 것이라는 각오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면서 『15만 경찰이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려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일에 대해 다음 사항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첫째, "책임에 걸맞는 권한"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수사권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더 이상은 우리 경찰이 '박봉과 격무'의 대명사로 거론되지 않도록 "역할에 걸맞는 복지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금년 7월이면 모든 공무원까지 참여하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우리 경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근무시간 단축과 병행하여, 과로한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서별·기능별로 정확한 근무 실태를 파악하여 시간의 낭비·야간근무수



먼저 허 청장은 『아무리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지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실효"를 갖추지 못한다면 진정한 직업경찰관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경찰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실효를 창출 것, 경찰이야말로 인권존중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생관계에 있는 것임을 명심하고 인권을 존중할 것, 국민이 느끼는 일체의 불안·불만·불편 등 민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봉사, 법질서를 확립하고 사회 안전망을 제대로 갖춰 경제를 살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 청장은 『경찰창설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경찰혁신과 조직운영의 쇠퇴를 통해 세계일류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우리 15만 경찰이 더 이상 '모래알 사소한 언행부터 조심하며, 항상 자신보다는 조직의 발전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각오를 다질 것』을 강조했다.

한편, 허 청장은 『경찰혁신과 관련해 무

당·위협수당·대우공무원 수당 등 수당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활동비 현실화를 추진하고,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전체 경찰관의 83.8%에 달하는 경사 이하 일선경찰관이 "꿈과 희망"을 갖고 보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경사이하의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직급조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승진소요기간 단축·입직경로별 승진인원 배분 및 근속승진제·특진제 개선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능력이 우수한 직원에게 승진의 문호를 대폭 개방하고, 조직의 기본틀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며, 독신자 숙소·보육시설 설치 등 복지증진 방안도 경찰혁신 차원에서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 청장은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일선경찰관까지 참여하는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월의 예정 행사

- ◆ 경무산악회
 - 일시: 2월 17일(목) 10:00
 - 장소: 청계산(매봉) 대공원역 집결
- ◆ 무궁화회
 - 일시: 2월 21일(월)
 - 장소: 기흥 컨트리클럽